

지방자치·종합

“독도는 우리영토, 목숨바쳐 지켜야”

李대통령, 현정사상 대통령으로 첫 방문

日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한일관계 급랭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헬기 편으로 독도에 내려 1시간 10분간 독도에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독도에서 윤장수 경비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초소 경비대를 둘러보고 ‘한국령(韓國領)’이라고 쓰인 바위에 올라 사진 촬영을 했다. 이어 독도를 한바퀴 돌아본 뒤 독도 전사자 모비리를 찾아 현화·목록을 봤고, 경비대 식당에서 ‘독도 지킴이’ 김성도(73)씨 부부 등과 대화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긍지를 가지고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30분께 헬기 편으로 울릉도에 도착, 김관용 경북지사와 최병호 울릉군의회 의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회장 등 지역 인사와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독도 방문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동안 일본의 잇따른 역사적 망언과 도발이 우리의 ‘조용한 외교’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원수로서 독도 영유권 논란에 빼기를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로 한·일 관계는 크게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확인되자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위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데 이어 무도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즉각 소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지난 11일 오전 일본 취재진에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평화적으로 쟁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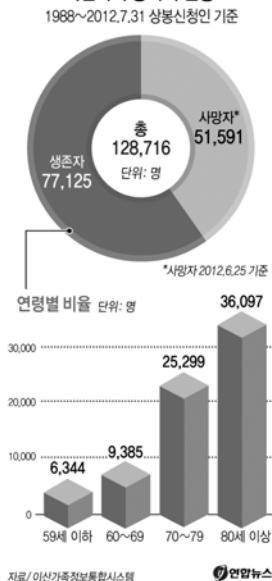
그는 이날 오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상 사무차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 무도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대사 등을 함께 대응 조치를 협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일본이 원



광복절을 맞은 10일 오후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 태극기가 새겨진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산가족 등록자 현황
1988~2012.7.31 상봉신청자 기준



‘한가위 이산상봉’ 사실상 물건너 간 듯

실무접촉 제안에 北 거부

정부가 주석을 계기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상봉은 물 건너갈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적십자 실무 접촉을 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대해 북측이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사실상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천안한 폭침에 따른 5·24조치와 고(故) 박원자씨 피격 사건에 따른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하는 것은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반

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남남갈등 차원에서 휴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국간 회담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유지해 왔다.

천안한 폭침과 관련해서는 북측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의 신변안전 보

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통일부는 이 때문에 한가위 이산상봉 제안에 대한 북측의 조건이 달린

대답에 대해 “우리측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조언으로 걸었다”면서 “북한이 김정은 체제 이후 여러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번이 없는 한 7개월 남짓 남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상식 건물 : 3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일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월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거장
- 청고동 300평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개설 20개 대출 42천 매도가 8~9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대출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신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지, 농지전용 원료,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공장 창고동도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횡성면 성강리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필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49.co.kr

“28~30일 3D 컨버팅 기술테스트”

김 캠코 사장, LA서… 한미합작투자사업 지속 이달말 결론

광주시는 부실투자 의혹을 낳고 있는 3D 컨버팅(입체변환)과 관련한 한미합작투자사업 지속 여부를 이달 말쯤 결론내리기로 했다.

한미합작투자사업을 위해 설립된 캠코(GAMCO)의 김명술 대표이사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합작투자사업 미국 층 퍼트너인 K2AM이 아직 가지고 있다는 3D 컨버팅 기술과 관련해 이달 20일 미국 LA 현지에서 예비테스트를 하고 28일부터 30일까지 최종 기술테스트를 하기로 K2AM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기술력 테스트를 위한 사전 비용과 워크스테이션 1차분 15대 선적 때까지 필요한 자금은 K2AM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30일 테스트 결과를 종합 평가한 뒤 사업을 순차적

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테스트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 공인 3개 기관을 지정해 검사증명서도 만들고, 3D변환 속도와 품질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하게 될 것”이라며 “LA 현장 기술테스트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최종 기술테스트에 합격하면 9월 14일 최신 영상장비인 워크스테이션 1차분 15대 선적에 이어 10월 15일 2차분 85대에 대한 선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장비 대형은 선적 40%, 도착 후 10일 뒤 잔금 60%가 지급된다.

그는 또 물량 제공과 관련해 “K2AM 층이 이미 150편의 물량을 확보

함으로써 3000만 달러의 물량을 캠코에 제공할 준비를 마친 사실을 확인했으며, 8월 20일 예비 테스트 이후 본격적으로 물량 제공 계약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미국 층 회사의 기술력이 애초 계약대로 입증되면 사업을 계속하고,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기술력 검증 시한이 또다시 늦춰지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미 K2AM 층에 지불한 650만 달러에 대한 사용처와 관련, “광주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시작될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증인 조사과정에서 650만 달러 사용처를 놓고 조사특위 위원들과 김 대표 간 진실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환경시설공단

신규직원 16명 채용

광주시환경시설공단은 하수처리장 총인(總憲) 처리시설 운영인력을增원하기 위해 신규직원 16명을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개채용 14명(경력·시설 각 4명, 기계·전기 각 3명)과 기능 인재(검습직원) 고졸 추천 채용 2명을 선발하는 시설공단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해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직렬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시여야 한다.

기능 인재 고졸 추천채용 응시자격은 소속 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10% 이내로서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기능 인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U대회 남북단일팀 지원해 달라”

강시장, 반총장에 요청

강운태 광주시장은 12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나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여수 세계박람회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수를 찾은 반총장과 단독 회동을 갖고 “필요하다면 남북 당국자 회담 주선과 함께 UN 사무총장 자격으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남북 단일팀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강 시장은 또한 광주시가 UN 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될 수 있도록

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강 시장은 또한 광주시가 UNEP(유엔환경계획), 월드뱅크와 함께 개발 중인 도시 CDM(첨정개발제) 시스템이 UN 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될 수 있도록 반총장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UN 인권도시 지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반총장은 광주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UN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도시 CDM 시스템과 UN 인권도시 지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측에 정보 ‘누설’ 의혹 교도관 감찰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 층에 알려준 의혹을 받는 구치소 교도관이 내부 감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측은 그동안 “내부 감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입식(50) 솔로문제 출연 회장과 오

최근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에 대해 감찰을 벌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입식(50) 솔로문제 출연 회장과 오

문월(60) 보해지축은행 전 대표 등이 검찰청에 나가 조사를 받고 돌아오면 심문 내용을 물어본 뒤 이를 박 원내대표 층에 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 층은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당시 교도관이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전혀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원룸 매매

원룸 파실분 환영!

(8억 ~ 12억 계약 가능)